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공간이용 변화과정

송 경 언*

Spatial Impacts of Tourism on Fishing Villages in Jeju Island

Kyung-Un Song*

요약 :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 과정에 있어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는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관계, 관광관련활동의 병행양식과 공간이용 양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관계는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가 '바다 → 바다·해안 → 해안'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보편적이던 것이 '해안' 단계에서 기존 생산활동이 관광관련활동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관광관련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의한 관광관련활동의 병행 양식과 '어디에서'에다 '무엇이'라는 생산활동 내용이 더해진 공간이용 양식은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이 보완관계일때 바다의 어로활동과 낚시의 병행은 동일공간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시간적 겸업'과 '바다공간 유사이용'이고, 이어지는 바다 낚시와 해안 관광관련기능의 병행은 상이한 공간으로 구성되는 '공간적 겸업'과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에 해당된다. 횃집과 민박을 비롯한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이 기존 생산활동을 대체한 후의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은 '시간적 겸업'과 '해안공간 상이이용'이고, 마지막으로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이 나타난다.

주요어 : 어촌, 관광지화 과정, 시간적 겸업, 공간적 겸업, 공간이용

Abstract : This study is to analyse spatial impacts of tourism on fishing villages in Jeju islan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ocation of tourist function - sea or land - has an influence on spatial use of pre-tourist and tourist function. The locational changes of tourist function are to be the indicator of the developmental stages, the uses of 'where' to be the phases, the uses of 'where' and 'what' to be the process in the spatial impacts of tourism on fishing villages. The phases are 'time combination → spatial combination → time combination', the process is 'widened range · diversification → narrowed range · specialization' according as the tourist function of the sea changes into the land. This is to be risk management of the tourist function.

Key Words : fishing village, tourism impact, time combination, spatial combination, spatial use

1. 서론

어촌은 땅 뿐만 아니라 바다도 포함하고 있어 농촌에 비해 관광지화에 유리하다. 관광객(수요자)은 일상생활에서 대하기 어려운 바다를 만날 수 있고, 관광지 주민(공급자)은 어업과 농업의 겸업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농업활동이 전업 양상을 보이는 농촌보다 새로운 생산활동인 관광관련활동에 참여하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지화가 이루어지는 어촌공간은 바다를 포함하고 있어 도시공간이나 농촌공간보다 다양하나, 관광지화 논의에 있어 대표적 일반화론인 '발달단계론'은 관광객 수의 '증가 → 정체·감소'를 강조하여 관광지간 차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모든 관광어촌에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관광어촌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광지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관광관련기능을 대상으로 바다와 땅이라는 대조적 요소로 구성되는 어촌의 관광지화 과정에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usong2030@hanmir.com

있어 공간이용 양상과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공간이용의 양상에 대한 고찰은 관광어촌의 일반적 현상인 어촌공간상의 생산활동간 결합의 과정과 그 추이를 분석한다. 공간이용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관광관련활동의 생산활동 형태가 겸업에서 전업으로 전개되는 것이 관광관련활동이란 새로운 기능 참여의 위험부담에 대응하는 과정이라 보고, 이러한 과정이 공간이용 양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 대상의 '문제지향적 지역지리'¹⁾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도출하기 위해 관광기능의 병행 양식과 공간이용 양식 고찰이란 공간분석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지역인 제주도의 어촌은 97곳으로 전체촌락 272곳의 35.7%, 해안촌락 113곳의 85.8%에 이른다²⁾. 어촌 가운데 관광기능이 분포하는 곳은 모두 67곳으로, 전체어촌 97곳의 70% 정도가 관광어촌³⁾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어촌공간상의 관광기능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촌으로의 접근성과 어촌의 관광자원인데, 제주도 마을(어촌)에 대한 접근성은 반도부 보다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해안지대에 위치하는 중심도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 등을 통과하고, 해안지대와 중산간지대의 마을간에는 지선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지대에 위치하는 마을은 그 지대의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대의 간선도로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반도부의 경우, 중심도시간 간선도로에 인접한 마을과 떨어진 마을간의 접근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 어촌의 관광기능 차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촌으로의 접근성이 아닌 어촌의 관광자원이며, 관광자원에 따라 입지하게 되는 관광기능의 성격은 그 위치가 해안⁴⁾ 또는 바다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해안은 기본적으로 바다와는 달리 땅이며, 바다는 해안보다 자연조건의 영향을 더 받을 뿐만 아니라, 체험관광과 연관된 관광관련활동은 바다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주도 어촌의 관광기능 위치는 바다 12곳, 해안 26곳, 바다·해안 29곳 등이다⁵⁾.

2. 관광지 발달과정에 대한 논의

관광어촌(관광지)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방법은 공간에 대한 인식 차에 따라 발달 단계론, 경관 변화론, 공간 계층론, 사회적 공간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달 단계론은 관광지의 공간적 차이를 소홀히 한 것인 반면, 경관 변화론, 공간 계층론, 사회적 공간론 등은 지리학에 있어 공간개념에 대한 논의 전개와 관련된다.

첫째, 발달단계론은 관광지의 발달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는 것으로, 발달 단계의 귀납적 추론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두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관광지 발달단계의 모델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고전적인 제품생애주기를 관광에 적용하여 관광지 발달단계를 관광객 수라는 지표로써 구분한 것이다 (Butler, 1980). 관광지의 발달과정은 '탐색→설비제공→개발→정착→정체→쇠퇴 또는 재활성화'라는 여섯 단계로 제시되었다. 탐색(exploration) 단계에서는 관광객이 자연과 문화의 특수성에 매력을 느끼며, 개별적으로 방문한다.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없으므로, 관광지 주민과 빈번히 접촉하게 되고 주민 시설들을 많이 이용한다. 설비제공(involverment) 단계에서는 관광활동이 부분적으로 규칙성을 보임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우선적이거나 관광객들만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개발(development) 단계에서는 관광지의 물리적 변화가 현저하나 이에 대해 주민 전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지방이나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설비 제공은 필수적이거나 이에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정착(consolidation) 단계에서는 관광객 수가 여전히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관광은 관광지의 경제에 있어 주요 부분으로 자리를 잡는다. 정체(stagnation) 단계에서는 관광객 수가 최고조에 이르고, 단체 관광의 형태로 조직화되며, 관광지 수용력의 한계가 나타남으로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야기된다. 정체 단계 이후에는 쇠퇴(decline) 단계 또는 재활성화(rejuvenation) 단계가 나타난다. 쇠퇴 단계에서는 보다 새로운 매력을 가지는 곳과 경쟁할 수 없으므로,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수요공간이 축소된

다. 재활성화 단계는 인공적인 매력을 추가하거나 개발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관광지의 매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지 발달단계 모델은 모든 관광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화의 양상도 개발 정도, 관광객 수, 접근성, 정책, 경쟁관계의 관광지 등의 영향을 받아 관광지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하나의 발달단계론은 Butler의 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주변부 관광지의 발달단계를 '탐색 → 지역적 통제 → 제도화 → 위기'와 같이 구분한 것을 들 수 있다(Keller, 1987). 탐색(discovery) 단계에서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특정 관광객으로 매우 제한되거나, 단지 지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통제(local control) 단계에서는 관광지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는 주변부 관광지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지방정부는 개발을 제한한다. 제도화(institutionalism) 단계에서는 개발이 부분적으로 대규모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외부 투자주체와 주변부 정무간 경쟁으로 중심-주변간 갈등이 나타난다. 앞의 발달 단계들을 거치면서 개발에 대한 통제와 자본 투입의 공간적 계층은 '관광지 → 지방적 → 국가적 → 국제적' 차원으로 변화한다. 마지막으로 위기(crisis period) 단계에서는 관광지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 초기의 매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광객이 감소하고, 자본 투자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게 된다.

둘째, 경관변화론은 어촌공간 가운데 바다의 관광관련기능을 다룬 연구는 보이지 않으므로, 말타(Malta) 관광어촌에 있어 해안의 관광관련기능을 대상으로 한 경관변화 모델(Young, 1983)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관변화는 여섯 단계-초기 전통어촌, 후기 전통어촌, 최초 관광어촌, 초기 관광어촌, 관광어촌 개발, 관광어촌 정착-로 구성된다. 제 1 단계(초기 전통어촌 단계, early traditional)에서는 어업과 농업이 병행되고, 관광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업종사자의 거주지는 해변에 위치하고, 농업종사자의 거주활동은 해변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다. 제 2 단계(후기 전통어촌 단계, late traditional)에서는 어업과 농업활동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나, 부유한 지방민과 국내 관광객들

을 위한 소규모 별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 3 단계(최초 관광어촌 단계, initial tourism)에서는 지방민들이 이용하는 별장은 증가하기 시작하나, 관광객은 적고 이와 관련된 경관 변화는 소규모 민박과 같은 형태에 한정된다. 제 4 단계(초기 관광어촌 단계, early tourism)에서는 고급 관광시설들이 전망 좋은 곳에 입지하고, 지방민 휴가를 위한 숙박시설이 등장한다. 별장 분포는 어촌중심으로부터 확산되고, 음식점은 어업종사자 거주지에 들어선다. 어촌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급 관광시설에 고용되기도 하지만, 관광관련활동 참여에 있어 사회·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제 5 단계(관광어촌 개발 단계, expanding tourism)에서는 관광부문이 더욱 활성화되고 어촌 토착민의 이익을 위한 관광지 개발이 국가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외국 투자자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고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고, 이주민들은 약국, 부띠끄, 미용실, 식당, 주점, 주유소 등의 관광관련 시설들을 운영한다. 제 6 단계(관광어촌 정착 단계, intensive tourism)에서는 마을 팽창에 따른 최종단계의 도시개발과 상·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민간부분의 투자가 나타난다. 지방민과 외부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곳곳에 분포하고, 카지노, 공연시설 등과 같은 새로운 시설이 입지한다.

셋째, 관광지 발달과정에 대한 공간계층론으로는 관광지와 수요공간간 거리에 따른 개발 참여공간 계층과 특정 관광지의 수요공간 계층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관광지와 수요공간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개발 참여공간의 계층이 상향화한다는 것에는 일치를 보이는 반면, 특정 관광지에 있어 수요공간 계층의 시간적 변화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요공간 계층이 상향화한다는 연구는 말레이반도 동부해안 관광지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어 국내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들 수 있다(Wong, 1986; Pearce, 1989, 91-93). 이에 따르면 관광지는 단계적-① 관광지 주민의 해변 이용은 리조트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져옴 ② 초기의 리조트는 국내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③ 국외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로 개선됨-으로 변화한다. 이와 반면

에 특정 관광지에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요 공간 계층이 하향화한다는 연구는 유럽의 국제적 해변관광지의 공간적·시간적 발달을 모델화한 것이다(Gormsen, 1981, 150-170; Pearce, 1989, 19-22). 관광지와 수요공간간 거리에 따른 주변지역 네 곳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로서, 수요공간으로부터 가까운 관광지일수록 발달 원동력의 외부 의존도는 적어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네 주변지역에서는 관광수요가 점차 보다 낮은 계층으로 확대되고,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참여도 증대된다고 하였다.

넷째, 관광지 주민집단에 따라 관광관련활동 및 거주활동의 공간적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는 사회적 공간론으로는 대도시인 울산 주변어촌의 관광지와 과정을 살핀 연구(백선휘, 1997)를 들 수 있다. 어촌의 연안어업이 쇠퇴하고 대도시민이 여가 활동을 위해 어촌을 찾기 시작함으로써, 轉業을 모색하던 어업종사자는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광어촌으로의 변화는 공동작업 조직인 어촌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토착민 중심의 어촌계는 활어위판장을 설립함으로써 이주민의 서비스업에 대응하였다. 관광어촌으로의 변화단계는 '이주민의 활어 요식업 종사→어촌계의 활어위판장 설립→위판장관련 서비스업 파생'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발달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인 발달단계론, 경관변화론, 공간계층론, 사회적공간론 등 개별적 논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 연구의 필요성을 살피고자 한다. 기존 논의는 기술적 또는 분석적이란 연구관점의 차원에 있어 대부분 개별 사례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적 논의가 적지는 않으나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졌으며, 발달단계론과 공간계층론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차원의 연구는 어촌간 내부공간의 차를 대상으로 한 반면, 분석적 연구는 어촌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촌화 과정에 있어 어촌 내부공간의 변수에 근거한 일반화 논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달단계론과 공간계층론이 변화의 지표로서 각각 관광객 수와 수요공간 계층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관광촌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자체가 관광지 내부 변화의

실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촌 내부공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관광지화의 양상을 대상으로 할 뿐 이와 분리될 수 없는 관광지화의 과정은 배제되고 있으며, 어촌 내부의 관광지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일정 변수의 단계적 추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어촌에 대한 특수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촌 내부공간을 대상으로 관광지화의 양상과 과정에 있어 일련의 단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연구배경을 지니게 된 것이다.

3. 사례 어촌별 관광지화 과정

사례어촌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관광어촌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어촌 유형간 차이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촌의 관광자원과 어촌으로의 접근성이나, 후자의 영향력은 접근성이 양호한 제주도 어촌에 있어서는 크지 않으므로, 관광어촌의 유형화는 어촌의 관광자원을 지표로 할 수 있다. 결국, 바다와 땅으로 구성되는 어촌공간의 관광자원 성격은 관광관련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므로 관광어촌의 기본적 유형은 관광관련기능의 위치에 따라 바다 및 해안 지향 관광어촌, 바다 지향 관광어촌, 해안 지향 관광어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기능이 바다와 해안에 모두 위치하는 곳은 바다와 해안의 관광기능간 매력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관광기능의 위치가 바다·해안인 관광어촌이 반드시 바다·해안지향 관광어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수산물 채취·채포 어장이 분포하는 곳은 해안에 관광기능이 위치하더라도 바다의 수산물 채취·채포라는 관광활동의 특화도가 해안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바다지향 어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어촌의 유형에는 기본적인 세 유형과는 차이를 보이는 두 유형이 추가될 수 있다. 하나는 관광기능의 위치가 중심어촌 내부인 기본 유형과는 달리 중심어촌 외부에 위치하는 해수욕장 인접 어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촌으로의 접근성에 있어 제주도에 위치한 어촌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도서 어촌이다.

관광어촌 유형별 사례어촌의 선정은 관광기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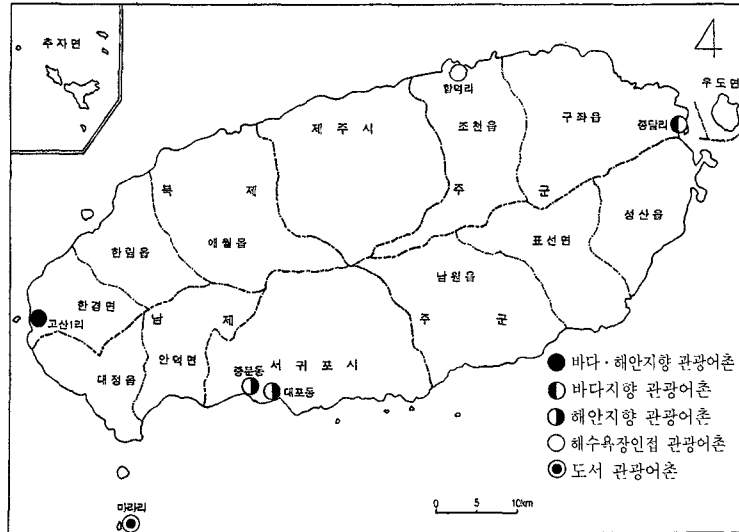


그림 1. 사례 어촌의 위치

많이 분포하거나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사례어촌의 위치는 어촌간 인접이 사례어촌간 차별성 부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례간 거리가 가깝지 않도록 했다. 바다 및 해안지향의 관광어촌으로는 '트롤링'⁸⁾이란 바다낚시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와 연계된 수산물조리점이 많이 분포하는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1리. 바다지향의 관광어촌으로는 맛조개 잡이로 이름이 나있는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해안지향의 관광어촌으로는 '중문관광단지'에 인접함으로써 해안의 수산물조리점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수욕장인접 관광어촌으로는 제주도의 대표적 해수욕장이 위치할 뿐 아니라 바다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도서 관광어촌으로는 관광 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마라도와 우도 가운데 다른 사례어촌인 종달리와 가깝지 않은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가 선정되었다(그림 1).

사례어촌별 관광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생산활동간 병행과 그 전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생산활동간 병행은 계절성⁹⁾을 지니는 하나의 생산활동이 그 밖의 생산활동과 결합함으로써, 그 전개는 이전의 생산활동이 이후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례어촌별 관광지화 과정에 대한 기술은 기존생산활동에서 관광관련활

동으로의 변화가 대체로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병행→관광관련활동간 병행→전업의 관광관련활동'¹⁰⁾이라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러한 틀로 이루어진다¹¹⁾.

한편, 사례 조사는 1999~2001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례어촌의 자료조사 기준 연도는 2000년이다. 조사 내용은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생산활동이력과 어촌 전체의 생산활동으로 구성되고, 조사 대상은 모든 사례어촌의 관광활동 및 어로활동 종사자와 일부 어촌의 잠수종사자이나, 면접 대상은 질문내용이 단순하므로 사례어촌의 생산 및 생활에 대해 정통한 주민을 선정하였다. 면접 대상자 수는 사례 어촌별로 5명(함덕리)~12명(고산 1리)으로 총 47명이다. 면접 방법은 대상자로 하여금 여러 관광활동 종사자에 대해 진술하도록 했고, 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관광활동 종사자에 대해 대부분 2명 이상에게 질문하였다.

1) 바다 및 해안 지향 관광어촌: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1리

고산1리 어촌의 바다낚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현재 바다 낚시를 위해 등록된 어선은 모두 25척으로, 제주도 전체(157척)의 15.9%이고, 북제주군 전체(86척)의 29.1%를 차지한다¹²⁾. 이러한 바다 낚시는 해안의 횃집 및 민박과 연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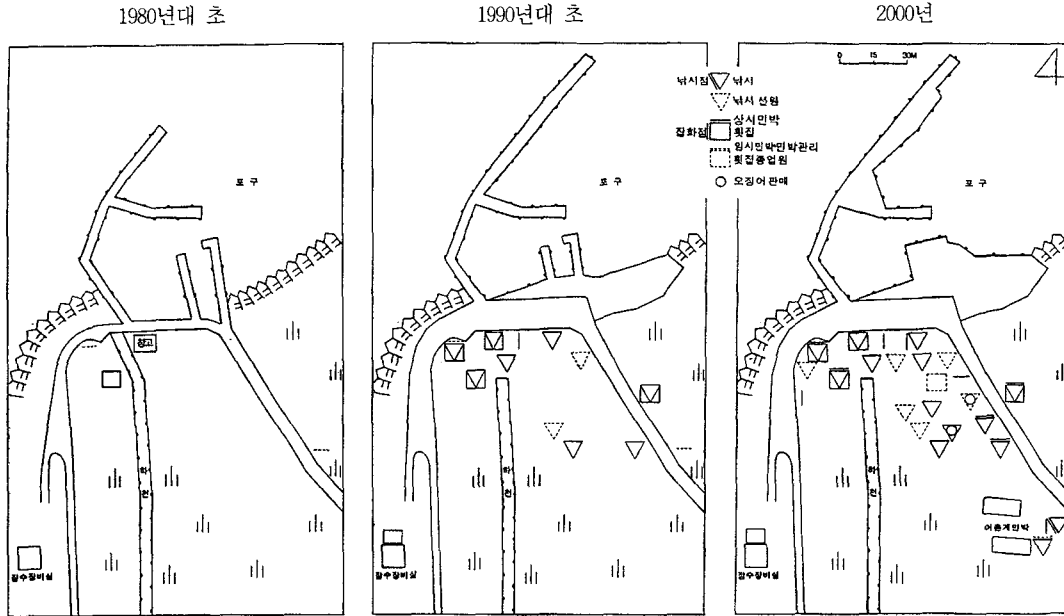


그림 2. 고산리 중심어촌 주민의 관광관련활동 변화

주: 범례의 오징어 판매는 오징어 건조활동 가운데 관광관련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나타냄.

자료: 국립지리원, 1981, 1995, 1:5,000 지형도, 주민 면접.

어 있으므로, 고산리는 바다·해안 지향의 관광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간 병행을 대표하는 것은 바다낚시와 어로활동간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다낚시는 그 목적에 따라 낚시 경험이 풍부한 낚시객들의 취미형과 경험이 적은 관광객들의 체험형으로 구분된다. 체험형 낚시객의 수는 취미형 낚시의 두배 정도에 이르고, 체험형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7~8월, 10~11월이 가장 붐빈다. 이는 8~9월의 한치어로 성어기와 8월이 겹치고, 한치어로가 가능한 6~11월과 대부분 겹치나, 한치잡이는 시기적으로 심한 편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바다낚시와 한치어로는 각각 낮과 밤에 이루어지므로 둘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바다낚시는 어로 활동과의 접점을 통해 쇠퇴일로 어로활동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로와 농사, 어로와 잠수, 어로와 오징어 건조 등 어로활동을 포함하는 기존 생산활동간 병행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이는 관광활동인 바다낚시가 기존 생산활동간 병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어업활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로활동

과 잠수활동에 참여하는 가구단위의 성별 분업은 1980년대 중반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남성의 바다 낚시와 여성의 오징어 건조라는 또 하나의 성별 분업 수용이 용이하도록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생산활동간 병행이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관련활동은 기존 생산활동들이 병행되도록 하며, 기존 생산활동의 병행은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이 병행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은 바다의 낚시에다 해안에 횃집과 민박이 입지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 관광관련활동인 낚시, 횃집, 민박 가운데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낚시는 1990년대 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횃집은 1990년대 초에 이미 2000년과 같은 수인 5곳이나 분포하였던 반면, 상시민박¹³⁾의 대부분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섰다(그림 2)¹⁴⁾. 이에 따라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에 있어 기존생산활동과 보완관계를 이루는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낚시와 횃집(민박관리)(낚시점, 잠화점)이 각각 바다와 해안이라는 상이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반면, 기존생산활동을 대체하는 1990년

대 말에는 바다와 해안의 상이한 이용 뿐만 아니라 횃집과 민박이 병행됨으로써 해안의 동일건물에서도 상이한 공간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요컨대, 고산1리 어촌의 관광지화 시기 구분은 관광기능의 위치와 기능관계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¹⁵⁾. 1980년대 중반¹⁶⁾에 바다의 관광관련활동이 시작됨으로써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이 출현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바다의 관광관련활동이 해안과의 연계가 본격화됨으로써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관광관련활동간 결합 시기에 있어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이 보완관계인 경우는 1990년대 초 이후인 반면, 대체관계인 것은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이 본격화된 1990년대 말이다.

2) 바다지향 관광어촌: 복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는 바다에서의 맛조개 잡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름이 나 있는 반면, 해안의 관광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바다지향의 관광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다의 관광관련활동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바다 낚시로, 바다낚시 참여자는 모두 한치잡이 중심의 어로활동 뿐만 아니라 바다 낚시의 성수기가 당근, 감자 등 대표적 농작물의 수확시기와 겹치지 않아 농업활동도 병행한다.

바다낚시에 이어 출현한 바다의 관광활동은 맛조개 잡이라는 체험활동이다. 맛조개 잡이는 7~9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되어 음식점 2곳이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음식점 참여자는 모두 기존의 농업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맛조개 잡이 어장으로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도록 한 것은 1990~1996년의 해안도로 개설이다. 그러나 이는 생태와 관광의 관계를 조화가 아닌 갈등으로 나타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개잡이 어장과 해안도로가 이웃해 있는 위치는 체험관광이 지향해야 하는 생태와 해안도로가 지향하는 관광이 모순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한 관광자원인 맛조개 잡이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이와 함께 맛조개 자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체험관광 또는 생태관광이 생태지향적 관광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성이 종사하는 잠수어

업은 농사와 병행됨으로써 관광촌화로의 내적 추동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종달리는 당근, 감자 등의 농사가 상시적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요가 많아 노년층까지 참여할 정도이므로, 여성의 관광관련활동 참여의 필요성은 더욱 적어진다.

그리고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인 횃집 2곳과 음식점 1곳은 1990년대 말 이후¹⁷⁾에 모두 해안에 들어섰는데, 이곳에서의 관광활동은 바다 낚시와 조개잡이라는 체험활동과 대체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종달리 어촌의 관광지화는 대체로 관광관련기능의 위치인 바다와 해안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바다의 체험형 낚시 관광은 어로와 농사를 병행하는 겸업어업 종사자가 참여하는데, 이는 기존의 생산활동 기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말에 출현한 해안의 수산물 조리점에는 어업종사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존 생산활동이 어로, 잠수, 농사 등 여럿이 병행되는데다 해안의 관광활동이 바다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해안지향 관광어촌: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

서귀포시의 중문동과 대포동 어촌의 관광지화는 마을 내부의 어업관련 관광자원 보다는 마을 외부의 '중문관광단지' 입지가 지배적 영향을 미치며, 두 곳의 대표적 관광관련기능은 모두 해안에 위치하는 수산물 조리점이나 횃집이다¹⁸⁾.

'중문관광단지' 개발의 영향으로 1990년대 초반 중문동에 출현한 관광기능 가운데 특이한 것은 수산물 조리점이다. 수산물 조리점 입지는 인접한 관광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리점 이용자들의 관광활동은 '어촌박물관' 감상, 해상레저 또는 바다낚시, '중문관광단지' 숙박 등 대체로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 조리점은 1990년대 초 임시건물에서 시작되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잠수 15명 중 12명의 공동출자와 보조금에 의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산물 조리점에 참여하는 잠수들은 세 조로 나누어 교대로 점포에 나옴으로써, 수산물조리점 참여활동과 잠수어업을 시간적으로 병행한다. 수산물 조리점에 나오는 날짜가 잠수작업 기간과 겹치게 되면, 해당 조의 일부는 잠수작업에

참여하고, 일부는 수산물조리점 일을 하게된다.

대포동의 대표적 관광기능인 횃집은 모두 5곳인데, 출현시기는 1980년대 초에 1곳, 1990년대 중반에 3곳, 1990년대 말에 1곳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횃집 이용자들은 대부분 '중문관광단지'를 찾는 이들이다. 횃집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7월 중순~8월 중순 기간 동안과 12~5월에 수요가 많다. 특히 겨울에는 골프 관광객들이 많고, 이들의 지출액은 다른 관광객에 비해 높은 편이다. 횃집들은 '중문관광단지'를 오가는 승합차를 1대 이상씩 가지고 있으며, 관광단지의 호텔로부터 횃집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함으로써 관광밀집지구와의 거리를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횃집에서 이용되는 수산물 가운데 대포동 어촌의 자연산과 양식산은 드물고, 횃집 종사자들은 이전에 어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횃집과 어업활동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4) 해수욕장인접 관광어촌: 복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해수욕장관련 관광활동 가운데 어업종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민박과 바다낚시인데, 이들은 매우 강한 시간적 제약을 받으므로, 관광관련 활동과 기존활동의 병행은 대부분 시간적 차이로써 결합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낚시와 어로의 병행이다. 7월 20일~8월 15일 동안 낚시 어선은 하루에 5회 정도 바다낚시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데, 이 기간에 바다낚시 종사자는 바다낚시 외의 어로 어업에는 대개 종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낚시 근거리와 인접한 곳에서는 잠수어업 종사자들이 해수욕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조리점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잠수 8명은 모두 농사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이는 함덕리의 대표적 농사인 밀감 및 마늘 재배와 시간적으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밀감재배가 연중 이루어지고, 마늘은 여름철에 파종함으로써, 농사와 수산물조리점 활동의 병행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은 남성이 종사하는 바다낚시와 그 아내들이 이와 관련된 배표, 수산물 조리 및 식사 제공 등의 결합으로 10년전 정도에 시작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은 기존활동인 어로, 잠수, 농사 등과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전업의 관광관련기능은 호텔·여관 3곳, 횃집 2곳 등 모두 5곳인데, 4곳이 1990년대 중반에 출현하였다.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곳의 전업 관광관련 기능이 5곳이나 된다는 것은 여름철 해수욕장의 관광활동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름철의 일시적 수요만으로는 임계치를 채울 수 없는 관광관련기능들이 여름철 이외에는 주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부족한 임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해수욕장 관광활동의 강한 시간적 제약이 관광관련기능의 분포와 공간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관련기능의 분포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시적 관광관련기능과 상시적 관광관련기능이 각각 해수욕장과 거주공간에 입지한다. 공간이용에 있어서는 일시적 관광관련기능은 기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병행되고, 상시적 관광관련기능은 중심기능과의 병행으로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활동으로부터 관광관련활동으로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구분해보면, 바다의 낚시가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이후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은 병행되었고,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은 바다낚시와 관련된 수산물 조리점이 출현한 1990년대 초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은 1990년대 중반 해안에서 나타났다¹⁹⁾.

5) 도서 관광어촌: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리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간 결합에 있어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1980년대 초의 낚시와 어로, 민박과 거주 등으로, 기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와 유사한 관광관련활동이 병행되었다.

1980년대 낚시와 민박 중심의 관광관련활동은 1990년대에 이르러 유람선에 의한 감상위주의 관광이 시작됨으로써 횃집 및 잡화점의 관광관련활동과 결합되었다. 관광관련활동을 병행하는 이들의 출신지와 거주지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토착민들이, 이후에는 이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였고, 거주지에 있어서도 대체로 토착민들은 마라도에, 이주민 가족들은 마라도와 제주도에 나누어 거주한다²⁰⁾.

1990년대 말의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는 이전의 관광관련활동과는 많은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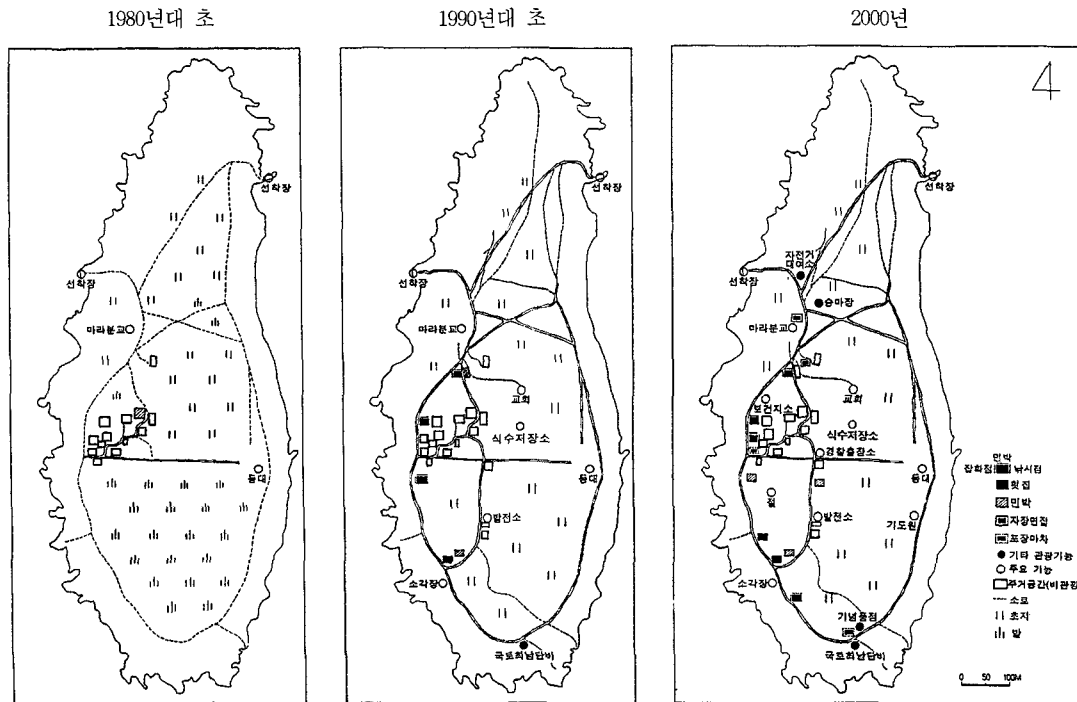


그림 3. 마라리의 관광 및 주요 기능의 분포 변화

주: 범례에 있어 ○, □ 등과 같이 그 내부가 여백인 것은 관광기능이 아닌 반면, 그렇지 않은 것은 관광기능에 해당됨.
 자료: 제주발전연구원, 2001, p. 31, 주민면접.

가져오고 있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기 직전인 1990년대 초와 그 이후인 2000년의 관광기능 분포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00년에는 1990년대 초에 비해 단일 관광관련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그림 3)²¹⁾.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은 그 종류에 따라 출현 시기와 종사자 출신지가 차이를 보인다. 기념품·필름점, 승마장 등은 1990년대 중반에 이주민이 종사하기 시작한 반면, 유람선관련기능, 포장마차, 자전거대여점 등은 1990년대 말 토착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²²⁾. 이는 이주민이 기술적으로 토착민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부문에 먼저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공간적 거주양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주민은 애월읍과 제주시에서 통근하거나 마라도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반면, 토착민은 모두 마라도에 거주한다.

요컨대, 기존 생산활동에서 관광관련활동으로의

변화에 대한 시기 구분은 관광관련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의 병행은 1980년대 초 이후의 바다와 해안의 관광기능이 입지함으로써 가능하였고²³⁾, 관광관련활동간 병행과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은 1980년대 말 이후의 해안 관광기능의 입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공간이용 변화과정

1)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별 기준 활동과의 관계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별 기준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 변화,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관계의 변화,

관광기능의 위치에 따른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 간 관계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첫째,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 변화이다. 바다 및 해안 지향 어촌, 바다 지향 어촌, 해수욕장 인접어촌 등에 있어 관광기능의 위치는 모두 '바다→바다·해안→해안'이라는 변화를 보인다. 이와는 달리 해안지향 어촌과 도서 어촌의 관광기능 위치 변화는 각각 '해안(→)바다'와 '바다·해안→해안'으로 나타나는데, 해안지향 어촌에 있어 해안 횃집의 조기 출현은 인접한 관광기능 밀집지구의 영향을 받았고, 도서 어촌에 있어 바다의 낚시와 더불어 해안의 민박이 초기에 나타난 것은 어촌으로의 접근수단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어촌의 관광지화에 있어 관광기능의 위치 변화는 일반적으로 '바다→바다·해안→해안'의 순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촌공간상의 관광기능 위치 변화에 있어 세 위치가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앞의 단계는 뒤의 단계가 시작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둘째,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 간 관계의 변화이다.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 간 관계는 기존 생산활동이 어촌의 전체 주민 또는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어·농업 활동인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라 직접적인 변화를 보이는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어·농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²⁴⁾. 그리고 기존 생산활동의 관광화에 따른 변화 정도는 관광문화 전후의 기존 생산활동종사기간의 변화로써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생산활동 종사자가 새로운 관광관련활동에 종사할 때, 기존의 어·농업활동 종사기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유지, 감소, 대체 등 셋이다. 기존 생산활동 기간의 유지와 감소의 경우는 관광관련활동이 기존생산활동과 보완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대체관계와는 구분되는데, 기존 생산활동과 새로운 관광관련활동의 기능관계는 관광촌

화에 따라 보완관계에서 대체관계로 진행된다²⁵⁾.

기존생산활동에서 관광관련활동으로의 일반적인 기능변화 과정은 '기존활동→기존활동+관광활동→기존활동+관광활동a +관광활동b→관광활동a +관광활동b→관광활동'이고, 모든 단계가 출현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순서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변화 과정은 관광관련활동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기존 생산활동과 병행되는 관광관련활동은 그 종류를 다양화하고, 기존활동이 관광관련활동으로 대체되고 나면 관광관련활동은 두 종류의 병행에서 한 종류의 규모 확대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 기능변화 과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광기능 밀집지구에 인접한 대포동 어촌의 '기존활동→관광활동→기존활동+관광활동'이다. 이는 '중문관광단지'가 인접어촌의 관광기능에 지배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인 횃집이 조기 출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광기능의 위치에 따른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 간 관계이다.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 간 관계는 관광기능의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바다' 단계는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병행이, '바다·해안' 단계는 기존활동과 하나 또는 두 종류의 관광관련활동 병행이, 마지막 '해안' 단계에서는 관광관련활동 간 병행과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례어촌의 관광지화에 있어 관광기능의 위치에 따른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 간 결합관계 변화는 '바다(기존활동+관광활동)→바다·해안(기존활동+관광활동a+(관광활동b))→해안(관광활동a +관광활동b→관광활동)'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표 1). 이는 보완관계를 이루는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병행에 있어 관광활동 종류의 다양화는 관광기능 위치가 '바다·해안'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보완관계가 대체관계로 바뀌는 것

표 1. 관광기능의 위치변화에 따른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 간 관계

관광기능 위치	바다	→	바다·해안	→	해안
기능 관계(활동)	기존+관광	→	기존+관광a+(관광b)	→	관광a+관광b → 관광

주: 관광a와 관광b는 관광관련활동 종류의 상이함을 의미하나, 기존활동과 병행될 때와 병행되지 않을 때의 '관광a+관광b'의 결합간에는 관광관련활동 간 결합을 이루는 활동종류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은 상시적 관광관련기능이 많이 위치하는 '해안' 단계일때 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문동은 예외적으로 기존활동과 관광활동의 보완관계가 '해안'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해안 관광활동의 공동 참여에 따라 종사자별 관광관련활동 규모가 적어짐으로써 기존활동을 병행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2) 생산활동의 병행 양식

겸업은 개인이 둘 이상의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부부가 각기 상이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산활동 종류가 상이하게 되는 것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또는 시간이나,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업은 공간, 시간, 사람 등 셋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하나의 영향으로 상이한 생산활동이 병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겸업양식에 대한 구분은 상이한 생산활동이 병행되도록 하는 요소인 공간²⁶⁾, 시간, 사람 등의 조합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공간, 시간, 사람 등 세 요소의 조합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는 여덟이다. 이 가운데 겸업으로서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각각 다섯과 셋이다(표 2). 겸업으로서 성립하는 경우 시간, 공간, 사람 등의 세 요소 가운데, 시간이 다르면 시간적 겸업, 공간이 다르면 공간적 겸업, 사람이 다르면 가구단위 겸업이라 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시간적 겸업과 공간적 겸업은 개인 단위²⁷⁾의 겸업으로, 가구단위의 겸업과는 구분된다.

사례어촌간 생산활동 결합양식의 특성 비교는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 관광관련활동간 결합 등으로 구분하며, 생산활동간 병행 뿐만 아니라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첫째,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으로(표 3),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어로와 낚시의 병행이다. 어로활동과 병행되는 낚시관광의 사례어촌간 차이로는 낚시관광의 시기와 인접 관광지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낚시 관광의 시기에 있어 고산1리와 마라리는 대체로 상시적인 반면, 종달리, 함덕리, 중문동, 대포동 등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사례어촌별 낚시대상어종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름철의 어랭이를 대상으로 하는 낚시는 제주도 모든 어촌에서 가능

표 2. 공간, 시간, 사람 등의 조합에 의한 겸업양식의 구분

〈겸업이 성립하는 조합〉			
구분 지표			겸업 양식
공간	시간	사람	
같음	다름	같음	시간적 겸업
같음	다름	다름	시간적 [가구단위] 겸업
다름	다름	같음	시간적·공간적 겸업
다름	같음	다름	공간적 [가구단위] 겸업
다름	다름	다름	시간적·공간적 [가구단위] 겸업

〈겸업이 성립하지 않는 조합〉			
구분 지표			겸업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공간	시간	사람	
같음	같음	같음	개인 단위 전업
같음	같음	다름	가구 단위 전업
다름	같음	같음	생산활동 불가능

표 3. 겸업양식별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내용 및 사례 어촌

겸업양식	기존 생산활동	관광관련활동	사례 어촌
시간적	어로	낚시	고산1리, 종달리, 중문·대포동, 함덕리, 마라리
시간적·공간적	잠수	음식점	중문동
	농사	음식점	종달리

한 반면, 다랑어와 벵에돔 낚시는 각각 고산1리와 마라리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산1리와 마라리에서는 다른 사례어촌과는 달리 여름철 뿐만 아니라, 대상 어종에 따라 그 밖의 시기에도 낚시관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접 관광지의 영향을 받는 함덕리, 중문동, 대포동 어촌의 낚시관광에 있어서는 중심어촌 외부에 위치한 관광지 기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함덕리 어촌의 낚시관광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반면, 중문동과 대포동 어촌은 인접한 관광밀집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감상위주의 관광과 숙박시설의 관광보조활동과는 병행되기가 어려우므로 낚시관광객이 그다지 많지 않다.

둘째,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이다. 이는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이 보완적일 때와 관광관련활동이 기존 생산활동을 대체할 때로 구분할 수 있다(표 4).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이 보완적일

표 4. 겸업양식별 관광관련활동간 결합내용 및 사례어촌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이 보완관계일 때〉		
겸업양식	관광관련활동	사례 어촌
시간적·공간적 [가구단위]	낚시, 민박관리 (낚시점, 잡화점)	고산1리
공간적 [가구단위]	낚시, 낚시관련 수산물조리점	함덕리
〈관광관련활동과 기존활동이 대체관계일 때〉		
겸업양식	관광관련활동	사례 어촌
시간적	Hits집, 민박	고산1리
	민박, 잡화점	마라리
시간적 [가구단위]	Hits집, 민박	고산1리, 마라리
	Hits집(식당), 민박, 잡화점	마라리

주: Hits집과 민박의 겸업 양식에 있어 시간적[가구단위] 겸업은 고산리와 마라리 모두에서 나타나는 반면, 시간적 겸업은 고산리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이는 Hits집 운영에 있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곳은 고산리와 마라리인 반면, 남편 대신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여성만 참여하는 곳은 고산리인 것에서 연유함.

때의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은 고산 1리와 함덕리에 있어, 관광관련활동이 기존 생산활동을 대체할 때는 관광기능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고산1리와 마라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종달리는 바다와 해안의

관광기능이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중문동과 대포동은 관광기능 밀집지구의 인접에 따라 관광기능 입지가 제한됨으로써,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을 구성하는 두 활동의 위치는 보완관계에서는 바다와 해안인 반면, 대체관계에서는 해안으로 구분된다.

셋째,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에 대한 사례어촌간 비교로, 이는 모두 해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례어촌에 분포하는 수산물조리점 종사자들은 종달리, 대포동, 함덕리 등에서는 전업의 형태를 보이지만, 고산1리는 바다낚시, 민박등과의 병행이 활성화되어 있고, 중문동은 수산물조리점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잠수활동을 병행하고 있다²⁸⁾. 그 밖의 전업 관광관련활동으로는 민박, 호텔·여관, 포장마차, 자장면집, 자건거대여점 등을 들 수 있는데, 민박은 상시적 관광관련활동이 이루어지는 고산1리²⁹⁾와 마라리에, 호텔·여관은 제주도 주변 해수욕장에 인접한 함덕리에, 포장마차, 자장면집, 자건거대여점 등은 대규모 관광객이 찾는 마라리에 분포한다.

3) 관광기능 위치별 관광관련활동의 병행양식

사례어촌간 생산활동의 결합양식에 대한 비교가 관광기능 위치의 변화양상인 '바다→바다·해안→해안'의 순서에 따라 논의됨으로써 관광기능 위

표 5. 사례어촌별 관광기능 위치에 따른 생산활동 병행양식의 변화

사례 어촌	생산활동 병행양식의 변화			
	관광기능의 위치	바다	→ 바다·해안	→ 해안
고산 1리	시간적	→	시간적·공간적[가구단위]	→ 시간적 시간적[가구단위] ... ¹⁾ 전업
종달리	시간적	→	시간적·공간적 ²⁾	→ 전업
중문동	시간적	→	— ³⁾	→ 시간적·공간적 ⁴⁾
대포동	시간적	←	— ³⁾	→ 전업
함덕리	시간적	→	공간적[가구단위]	→ ... ¹⁾ 전업
마라리	— ³⁾	→	시간적 ⁵⁾	→ 시간적 시간적[가구단위] → 전업

- 1) 고산 1리와 함덕리에 있어 전업으로의 변화는 다른 경우에 비해 온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고산1리는 행위주체 차원이 아니라 공간 차원의 전업이고, 함덕리는 전업의 수요자가 관광객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비롯됨.
- 2) 관광기능은 맛조개잡이 어장과 음식점이 각각 바다와 해안에 위치하나, 바다에서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관광기능의 위치에 있어 '바다' 또는 '바다·해안'의 단계는 해당되지 않음을 뜻함.
- 4) 관광기능인 음식점이 해안에 위치하지만, 이와 결합되는 기존활동인 잠수는 바다에서 이루어짐.
- 5) 관광기능인 낚시어선과 민박이 각각 바다와 해안에 위치하지만, 두 기능에 참여하는 가구가 상이할 뿐 아니라 민박은 관광보조기능이자 상시적이지 않아 제외됨으로써, 바다의 낚시와 어로의 결합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치별 생산활동 결합양식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표 5). 관광기능 위치가 바다인 경우의 겸업 양식은 모두 기존생산활동인 어로와 관광관련활동인 바다낚시간의 시간적 겸업이다. 한편, 도서어촌인 마라리는 예외적으로 바다의 초기 관광활동인 낚시와 해안의 민박이 동시기에 나타남으로써, 관광기능 위치의 변화에 있어 '바다'란 단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광기능 위치가 바다·해안인 경우의 겸업 양식은 고산1리의 낚시와 민박관리(낚시점, 잡화점)간 시간적·공간적[가구단위]겸업, 종달리의 농사와 음식점간 시간적·공간적 겸업, 함덕리의 낚시와 낚시관련 수산물조리점간 공간적[가구단위]겸업, 마라리의 어로와 낚시간 시간적 겸업 등인데,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에서는 시간적·공간적 겸업과 시간적 겸업이고,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에서는 시간적·공간적[가구단위]겸업과 공간적[가구단위]겸업이다. 그런데, 관광기능 위치가 바다·해안인 단계는 '기존활동+기존활동→기존활동+관광활동→기존활동+관광활동a+관광활동b→관광활동a+관광활동b→관광활동'이라는 일반적인 기능변화 과정에 있어 '기존활동+관광활동a+관광활동b'에 해당되는데, 겸업양식 논의의 대상³⁰⁾인 '기존활동+관광활동'과 '관광활동a+관광활동b' 가운데 기능변화의 흐름과 일치하는 '관광활동a+관광활동b'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³¹⁾. 따라서 관광기능 위치가 바다·해안인 경우의 겸업 양식은 시간적·공간적[가구단위]겸업과 공간적[가구단위]겸업이나, 이들은 각각 한 사례에서만 나타나므로 일반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관광기능 위치가 해안인 경우는 기능관계의 흐름상 대체관계에 해당되어 보완관계를 이루는 중문동의 잠수와 음식점간 시간적·공간적 겸업이 제외되므로, 겸업 양식으로서 일반화가 가능한 것은 고산1리와 마라리의 시간적(가구단위) 겸업³²⁾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기능의 위치변화에 따른 생산활동의 결합양식 변화를 일반화하면, 보완관계의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은 바다의 시간적 겸업이고, 대체관계의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은 해안의 시간적(가구단위) 겸업이다. 한편, 보완관계의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인 공간적[가구단위]겸업과 시간적·공간적[가구단위]겸업은 모두 하나의 사

례어촌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적 겸업양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관광기능 위치에 따른 생산활동간 결합 양식의 전개과정이 새로운 관광관련활동 참여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응과정이라고 한다면, '시간적 겸업→공간적[가구단위]겸업 또는 시간적·공간적[가구단위]겸업→시간적(가구단위) 겸업→전업'으로 일반화된 생산활동 결합양식의 전개과정에 있어 보완관계에서는 시간적 겸업에서 공간적[가구단위]겸업으로 진행됨으로써 기존 생산활동 종사자가 동일공간에서의 관광관련활동 하나와의 병행으로부터 상이한 공간의 관광관련활동 둘을 병행하게 되어 위험도가 보다 높아지고, 대체관계에서는 관광관련활동 종사자가 동일공간에서 관광관련활동을 시간적으로 병행할 때 보다는 전업에 종사할 때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어촌의 관광지화에 있어 생산활동의 결합양식 변화가 새로운 생산활동 참여의 위험부담으로 인해 그 위험도를 점차 높이는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관광관련활동의 공간이용 양식 변화

관광관련활동의 병행양식에 대한 고찰이 주로 생산활동의 대상공간을 고려한 것이라면, 관광기능 위치에 따른 관광관련활동의 공간이용 양식에 대한 분석은 공간이용의 대상공간과 이용내용의 차이를 함께 살핀 것이다.

관광어촌 유형별 공간이용 과정은 관광관련기능의 위치가 동일한 그룹끼리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6). 관광관련기능의 위치가 바다 및 해안인 어촌은 고산1리 뿐만 아니라 마라리도 해당되는데, 고산1리는 '바다공간 유사이용→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해안공간 상이이용...해안공간 동일이용'이고, 마라리는 '바다공간 유사이용→해안공간 상이이용→해안공간 동일이용'이다. 관광관련기능의 대표적 위치가 바다인 어촌은 종달리 뿐만 아니라 함덕리도 해당되는데, 종달리는 '바다공간 유사이용→해안·농업공간 상이이용→해안공간 동일이용'이고, 함덕리는 '바다공간 유사이용→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해안공간 동일이용'으로 나타난다. 종달리와 함덕리 어촌에서 '해안공간 상이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관광관련활동 종류의 단순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표 6. 사례어촌별 관광기능 위치에 따른 공간이용 양식의 변화

사례 어촌 관광기능의 위치	공간이용 양식의 변화					
	바다	→	바다·해안	→	해안	
고산리	바다공간 유사이용	→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	→	해안공간 상이이용	... ¹⁾ 해안공간 동일이용
중달리	바다공간 유사이용	→	해안·농업공간 ²⁾ 상이이용	→	해안공간 동일이용	
중문동	바다공간 유사이용		— ³⁾		바다·해안공간 ⁴⁾ 상이이용	
대포동	바다공간 유사이용	←	— ³⁾		해안공간 동일이용	
함덕리	바다공간 유사이용	→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	... ¹⁾	해안공간 동일이용	
마라리	— ³⁾		바다공간 ⁵⁾ 유사이용	→	해안공간 상이이용	→ 해안공간 동일이용

주: 표 5의 경우와 같음.

다. 관광관련기능의 대표적 위치가 해안인 어촌에 있어서는 관광관련활동에 개별참여하는 대포동에서는 '해안공간 동일이용→바다공간 유사이용'이고, 관광관련활동에 공동참여하는 중문동에서는 '바다공간 유사이용'과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의 병존이다. 대포동과 중문동의 공간이용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앞 어촌들과 상이한 진행 순서를 보이는 것은 인접 관광밀집지구의 기능을 보완하는 공간이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례어촌별 공간이용 양식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바다공간 유사이용→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해안공간 상이이용→해안공간 동일이용'으로 나타나며, 이는 관광기능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광기능 위치가 바다일 때 공간이용 양식은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바다공간 유사이용'이고, 바다·해안일 때는 관광관련활동간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이며³⁾, 이들은 모두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이 보완관계를 이룬다. 관광기능의 위치가 해안일 때의 공간이용 양식은 '해안공간 상이이용'과 '해안공간 동일이용'이고, 기존 생산활동은 관광관련활동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용 양식의 변화과정에 있어 새로운 생산활동 참여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응은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생산활동간 결합에 있어 대상공간의 범위 변화라는 차원에서의 위험도 변화로, 이러한

공간범위는 선택가능한 생산활동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보완관계는 바다에서 바다·해안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대체관계는 이전의 바다·해안에서 해안으로 축소되고 있다. 둘째, 생산활동의 이용내용에 있어 상이한 정도의 변화라는 차원에서의 위험도 변화이다. 상이한 정도는 보완관계에서는 '유사이용→상이이용'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체관계에서는 '상이이용→동일이용'으로 감소한다. 결국, 생산활동 선택범위가 넓을수록, 공간이용이 상이할수록 새로운 생산활동 참여의 위험도는 보완관계에서는 높아지나, 대체관계에서는 낮아지므로, 공간이용과정상의 위험도는 점차 높아지는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어촌주민 특히 어업종사자의 생산활동이 관광관련활동과 밀접히 연관되는 과정인 어촌의 관광지화에 있어 공간이용의 변화과정을 밝히고자 하였고, 원격지 어촌 가운데 관광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제주도 어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가 '바다→바다·해안→해안'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은 '바다'와 '바다·해안'단계의 보완관계로부터 '해안'단계의 대체관계로 변화되며, 생산활동의 병행양식과 공간이용 양식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관광기능 위치에 따른 생산활동 병행양식은 생산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동일공간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시간적 겸업과 상이한 공간으로 구성되는 공간적 겸업으로 구분된다. 기존 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이 보완관계일때 바다의 어로활동과 낚시의 병행양식은 시간적 겸업이고 이어지는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양식은 바다의 낚시와 해안의 관광관련기능으로 구성되는 공간적 겸업이며, 횃집과 민박을 비롯한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이 기존 생산활동을 대체하면 시간적 겸업의 관광관련활동간 병행과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관광관련활동의 시간적 제약에 대한 대응에 있어 바다의 시간적 겸업은 기존의 어업활동과 유사한 관광활동으로써, 공간적 겸업, 해안의 시간적 겸업, 전업 등은 관광관련활동의 종류나 규모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관련활동의 공간이용 양식에 대한 분석은 '어디에서'에 따른 생산활동 병행양식이다. '무엇이'라는 생산활동 내용이 더하여 이루어졌다. 시간적 겸업은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보완관계와 대체관계에서 나타나고, 그 공간이용 양식은 보완관계에서는 '바다공간 유사이용', 대체관계에서는 '해안공간 상이이용' 등이다. 그리고 두 시간적 겸업의 중간 단계인 공간적 겸업의 공간이용 양식이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이므로, 관광지화 전체 과정에 있어 생산활동 병행의 공간이용 양식은 '바다공간 유사이용→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해안공간 상이이용'으로 변화한다. '바다공간 유사이용'은 기존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에서 어로와 낚시가 병행됨으로써 새로운 생산활동인 관광활동 참여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바다·해안공간 상이이용'은 바다의 낚시와 해안의 관광관련기능 등의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으로서 관광관련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안공간 상이이용'은 바다의 기존 생산활동이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으로 대체되어 해안의 횃집과 민박을 비롯한 관광관련기능들이 동일 건물에서 병행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이 단일 기능으로 존재하게 되면 '해안공간 동일이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이용 양식의 전개과정은 전업의 관광활동 참여에 대한 위험부담

을 점차 완화해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라 생산활동의 병행양식과 관광관련활동의 공간이용 양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광기능의 위치가 '바다→바다·해안→바다'로 변화됨에 따라 관광지화의 양상인 생산활동의 병행양식은 '시간적→공간적→시간적' 차원으로, 관광지화의 프로세스인 관광관련활동의 공간이용 양식에 있어 공간범위는 '확대→축소', 이용내용은 '다양화→단일화'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註

- 1) 백과사전식 지역지리를 탈피하기 위해 어느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지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문제지향이란 주제를 설정한 것이다(류우익, 1986: 246-263).
- 2) 어촌 판별을 위한 지표로는 어촌 주민 가운데 농업종사자들이 오히려 많은 경우가 흔하므로, 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비율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치가 어촌이라는 생활공간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어촌은 어업공간이 공동이용되고, 공동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즉, 어장과 어항은 대개 공동으로 이용하며, 어로활동은 어선을 이용하므로 공동 작업이 불가피하다. 공동이용과 공동작업은 대체로 소규모 어항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소규모 어항을 끼고 있는 촌락은 중심어촌(어항을 끼고 있는 촌락은 어촌 기초생활권에 있어 생산의 중심이나 생활의 중심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중심어촌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어촌의 관광지화에 대한 논의가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어촌공간에 대한 구분은 어업활동의 중심인 중심어촌과 그렇지 않은 배후어촌으로 나누고자 한다)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규모어항 존재의 지표는 어항의 기본시설인 방파제나 선착장 가운데 어느 하나는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배후어촌 판별에 있어 기능적 지표는 중심어촌으로의 도보에 의한 접근 가능성이고, 등질적 지표는 어업공간의 공동이용을 반영하는 어선 두 척 이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은 소규모 어항을 끼고 있는 중심촌락과 그 인접 촌락 중 두 척 이상의 어선을 보유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 어촌과 촌락의 수 산출에 있어 어촌은 소규모 어항이 존재하는 촌락으로 보았고, 촌락의 단위는 행정리·법정동이며, 촌락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제주시의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연동동과 서귀포시의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이다.
- 3) 어촌의 관광지화란 어촌의 대표적 생산활동인 어업과 관광 활동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촌의 관광관련활동 비중은 주민의 생산활동과 관광활동 특성상 높지만은 않다. 어촌주민의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관광관련

- 활동이 대체로 기존 생산활동과 병행되며, 관광활동 특성에 있어서는 어촌의 관광기능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목적지 선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어촌이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관련기능이 하나 이상 분포하는 어촌이라 보고자 한다. 한편, 관광기능 분포의 공간적 범위는 대개 어업공간과 어업관련기능이 분포하는 공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활동은 이들 공간을 벗어나면 어업관련활동과의 관련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4) 어업관련기능이 분포하는 곳으로 보았는데, 어업관련기능은 어선이 어항에 머무르는 동안 생산물을 물으로 전달하고 생산활동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선 및 어구 정비시설, 제빙시설, 선원의 숙식 및 휴식 장소, 어업활동조직의 공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 5) 관광기능 위치별 어촌 수의 산정에 있어 바다인 곳은 낚시어선, 수산물 채취·채포 어장 등이, 해안인 곳은 횃집이 분포하는 행정리·법정동(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리·행정동)으로써 파악하였다. 낚시어선에 대한 자료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내부자료(2001), 제주시는 제주도 홈페이지(1999), 서귀포시는 주민면접(2001) 등을 이용하였고, 수산물 채취·채포 어장은 이른바 체험어장으로 알려진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와 종달리이며, 횃집에 대한 자료는 전화번호부(한국통신, 2000)로부터 산출되었다. 한편, 관광보조기능인 민박에 있어 임시민박은 이전의 기존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시민박은 대개 건물이 신축되는 등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관광어촌이란 어촌의 기능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시민박은 1개가 위치하면 관광어촌으로서 성립할 수 없지만 상시민박은 1개이더라도 관광어촌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민박에 대한 자료는 임시민박과 상시민박을 구분할 수 없어 관광기능 위치별 어촌 수의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 6) 어선이 미끼를 끌고가며 물고기를 유인하여 낚는 방법이다.
 - 7) 생산활동의 계절성이란 좁게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절이 있음을 뜻하나, 넓게는 생산활동의 계절별 차이를 포함한다.
 - 8)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은 하나의 관광문화 과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의 병행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 9) 한편, 생산활동의 결합내용 가운데 매우 드문 경우(관광관련활동 한 종류와 활동공간, 겸업단위 등이 동일한 경우가 하나 이하일 때) 뿐만 아니라, 출현 시기와 관광기능 위치가 각 사례어촌별로 일반화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10) 제주시는 1999년도 자료임. 북제주군, 남제주군: 군별 내부자료. 제주시: 제주도, 1999, "관광 정보." 제주도 홈페이지, 서귀포시: 주민면접.
 - 11) 어촌계 민박시설을 비롯한 중심어촌의 민박기능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심어촌 민박의 출현 시기와 기능은 배후어촌과 차이를 보인다. 출현 시기에 있어 중심어촌의 민박은 1980년대 초의 임시민박으로부터 1990년대 말의 상시민박으로 상시화한 반면, 배후어촌의 민박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섰다. 민박의 기능 차를 그 이용자로

- 써 살펴본다면, 중심어촌은 관광객인 반면, 배후어촌은 관광 성수기에는 관광객이고, 그 밖의 시기에는 농산물 상인 등이 거주한다.
- 12) 2000년 현재 관광관련활동에 종사하는 22가구 가운데는 귀환 이주한 경우가 3가구이고, 처가와와 연고로 이주하게 된 경우가 2가구에 이른다. 이는 고산리 관광관련활동의 높은 수익성에 대한 간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13) 바다와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이 대비되며, 이는 기능 관계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관광기능의 위치와 기능간 관계에 대한 시기적 구분은 동일 속성은 다른 속성과는 시기적 차이를 보이며 집단화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관광기능의 위치,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관계의 시기적 변화에 있어 하나의 단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14) 1980년대 초의 어로와 바다낚시의 병행은 아주 드물게 이루어져 1980년대 중반 이후와는 차이를 보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 15) 어촌계 소유의 횃집은 1990년대 중반 잠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용자 부족, 운영 미숙, 참여잠수에 대한 경시풍조 등의 이유로 유지되지 못하고 1990년대 말 개인에게 임대되고 말았다.
 - 16) 바다낚시도 두 곳에 모두 존재한다. 바다낚시의 출현시기에 있어 중문동은 수산물 조리점의 출현과 같은 1990년대 초인 반면, 대포동은 횃집의 출현보다 늦은 1990년대 말이다. 이러한 차이는 중문동과 대포동의 낚시객이 대부분 '중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이므로, 이러한 관광밀집지구로부터 도보 통행권을 벗어나는 대포동 바다낚시는 관광밀집지구에 인접한 중문동보다 뒤늦게 나타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7) 생산활동간 결합 형태 및 생산활동 종류에 따라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출신지와 거주양식도 차이를 보인다. 관광관련활동과 기존생산활동간 병행과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의 종사자는 모두 토착민,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인 횃집 종사자는 토착민 또는 도내이주민 등이고, 이들의 가구는 거의 합덕리에 거주한다. 반면에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인 숙박기능 종사자는 모두 도외이주민이고, 인접한 제주시에서 통근하는 경우도 대규모 호텔 직원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 18) 토착민들은 1명을 제외한 4명 모두 1990년대 중반 이전에 관광관련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거주지는 모두 마라도이다. 이와 반면에 이주민들은 6명 가운데 4명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관광관련활동에 참여했고, 가족들의 거주지는 마라도와 제주도로 나누어진다.
 - 19) 관광기능은 대체로 서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남쪽의 음식점 또는 민박 중 1곳을 제외한 7곳에 모두 이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보건지소'에서 '질'에 이르는 거주공간은 대체로 마라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모두 토착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관광공간과 토착민의 거주공간은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0) 전업의 관광관련활동들 가운데 하나의 생산활동 양식으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설정한 2개이상 출현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후이고, 이에는 횃집, 민박, 포장마

- 차, 자장면집, 자전거 대여점 등이 해당되므로, 그렇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 21) 1980년대 초의 관광관련기능은 낚시어선 2척과 민박 1곳으로 두 기능의 위치인 바다·해안은 관광기능 위치변화에 있어 하나의 단계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각 공간의 관광기능이 2곳 이상이어야 함)에 미치지 못하지만, 민박을 이용하는 이들이 낚시어선 2척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낚시와 민박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바다·해안을 하나의 단계로 보았다.
 - 22) 관광관련활동 중사자의 어업활동 특히 어로활동 변화가 마을주민 전체의 변화로 파악되는 경우는 중심어촌 규모가 작고 관광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고산1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마라리의 어로활동 변화는 관광지화보다는 열악한 어업 및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23) 기존생산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의 보완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대한 논의는 관광관련활동 중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관광관련활동이 기존생산활동을 대체한다는 것은 어촌 전체의 어업활동이 관광지화에 따라 감소 또는 소멸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24) 공간에 대한 구분은 생산활동 종류의 차이가 현저하도록 바다, 해안, 농업공간 등으로 한다.
 - 25) 겸업의 일반적 단위는 가구이나, 제주도 어촌에서는 성별 부문이 두드러지므로 생산활동의 결합단위는 가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도 포함한다.
 - 26) 한편, 마라리의 수산물조리점(횃집) 중사자는 전업이거나 민박 등을 병행한다.
 - 27) 고산1리의 민박은 행위주체 차원의 전업 관광관련활동이라기 보다는 공간 차원의 전업 관광관련공간에 해당된다.
 - 28) 겸업양식이 논의될 수 있는 생산활동 종류는 원칙적으로는 둘이다. 그러나 동일시기에 셋 이상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 29) '기존활동+관광활동'은 보완관계의 '관광활동a+관광활동b' 이전에 이미 나타난 기능관계인 반면, 보완관계의 '관광활동a+관광활동b'은 이후에 나타나는 대체관계의 '관광활동a+관광활동b'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0) 시간적 겸업은 고산1리의 횃집과 민박, 마라리의 민박과 잡화점 등이고, 시간적[가구단위]겸업은 고산1리의 횃집과 민박, 마라리의 횃집과 민박, 횃집(식당)과 민박과 잡화점 등에 해당된다.
 - 31) 관광관련활동의 병행양식에서와 같이 종달리와 마라리의 공간이용 양식은 기존활동과 관광관련활동간 결합에 해당되어 제외되었다.

文 獻

- 金日基, 1998, "觀光地化에 따른 東海岸 漁村의 變化," 문화역사지리 10, 15-37.
- 류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현대사회, 6(4), 246-263.
- 백선희, 1997, 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변화 - 울산시 강동면 정자리를 사례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언, 2002,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와 공간이용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起旭, 1984, 島嶼文化의 生態學的 研究: 濟州島 隣近K島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濟州文化放送株式會社, 1991, 濟州有人島學術調查.
- 제주발전연구원, 2001, 자연친화적인 마라도 종합발전계획.
- Butler, R. 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1), 5-12.
- Cooper, C., 1989, Tourist product life cycle in, Witt, S., Moutinho, L. (eds.), *Tourism Marketing and Management Handbook*, Prentice Hall, London.
- Gormsen, E., 1981, "The spatio-tempor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ourism: attempt at a centre-periphery model," *La Consommation d'Espace par le Tourisme et sa Preservation*, C.H.E.T., Aix-en-Provence.
- Kakimoto, N., 1987, Fishing communities and the geography of fishery,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60(Ser. B)(2), 203-211.
- Keller, C. P., 1987, Stages of peripheral tourism development - Canada's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Management*, 8(3), 20-32.
- Pearce, D., 1995,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Wiley, New York.
- Wong, P. P., 1986, Tourism development and resorts on the east coast of Peninsular Malaysi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7, 2, 152-162.
- Young, B., 1983, Touristization of traditional Maltese fishing-farming villages, *Tourism Management*, 4(1), 35-41.

최초투고일 03. 01. 24

최종접수일 03. 03. 11